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황성필 세례자 요한
 다음주 미사 독서: 조남석 베드로, 어수형 프란치스코
 금주 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다음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금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최고은 소피아
 다음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 바오로, 윤보연 소화 테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37
 교무금: \$1,500
 합 계: \$1,737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사제관 (2월 24일, 3월 9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3월 3, 17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3월 2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2월 18일 저녁 8시 이글하이츠 커뮤니티 센터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복음 이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오늘의 묵상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은 때일 것입니다. ...중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망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오래 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중략... 예수님께서 그 중풍 병자를 고쳐 주시자,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의 우정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우정을 보시고 중풍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루카 12,29-30)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당부 말씀이십니다. 중풍 병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중풍 병자에게 치유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당신부

박상훈 일렉산더
 (224)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698-6379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om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연중 제 7 주일]

2012년 2월 18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43,18-19.21-22.24 =-25

<제 2 독서> 코린토 2 서 1,18-22

회답송

◎ 주님,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 행복하여라,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이! 불행한 날에 주님이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이 보살피고 살리시니, 그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
 ○ 주님이 그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아플 때 온갖 고통 없애시리라. 저는 아뢰었나이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
 ○ 당신은 저를 온전토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 앞에 영원히 세워 주시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마르코복음 2,1-12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404 봉헌: 512 성체: 502 파견: 400



생명의 말씀

“용서는 아멘”

고찬근 루카 신부

아기들은 아무거나 먹으려고 해서 위험합니다. 또 뜨거운 것도 만지려 하고, 차가 다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기를 보살핍니다. 그런데 설령 어머니가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느님 당신은 우리 인간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 복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사람이 그것을 좋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느님께 냉담해집니다. 또한 인간은 자극적인 쾌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쾌락 역시 결국은 인간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것 대신 절제를 통한 평화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런 하느님께 싫증을 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잘 모르고, 하느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철부지 같은 인간 때문에 애간장이 타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큰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 때문에 배반까지 당하십니다. 하느님을 배반한 인간은 하느님을 떠났고, 이제는 인간세상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용하여, 인간세상을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와 좌절이 드리운 눈물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통곡하며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다정한 음성이 되어, 따뜻한 손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바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셨음을 선언하시고, 당신의 일을 힘차게 해 나가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시며 그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나서 병에 걸렸다고 외면당하는 병자에게 용서와 치유를 베푸시고,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던 창녀에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직 돈만 벌었던 욕심쟁이 세판장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당신을 배반한 허풍쟁이 제자도 다시 받아주시고,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로마의 정의(正義)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용서해주셨습니다. 일흔일곱 번이라도, 아무리 그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부정하고, 이웃을 부정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아니오, 아니요!”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 그래!” 하시며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가, 그 무거운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 하느님께 대한 ‘아멘’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 새 사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남은 2 월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3 월부터 새 사목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 다음 주 수요일(22 일)은 사순 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저희 공동체 별도의 미사는 없고, 가까운 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St. Paul 미사 시간: 7am, noon, 5pm, 7pm, 9pm)
-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사순시기를 맞아 Rice Bowl 모금을 진행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진 베드로)
- 다음 주 토요일 미사 전 오후 3 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성서학을 가르치시는 양승애 교수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 미사 후에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 행사 및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 2011 Tax return 에 필요한 증명서가 필요하신분은 회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사전

사순절(Lent)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사순절 - 파스카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된 40 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신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행위를 통해서 빠스카의 신비체험을 준비합니다. 이 시기는 재[灰]의 수요일부터 주의 만찬미사 전까지 계속되며 사순절 시작부터 부활 전야제까지의 미사에서는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은 온 세계에서 단식일(斷食日)로 지내며 머리에 재를 엷습니다. 이 시기의 주일은 사순 제 1, 2, 3, 4, 5 주일이라 부르고, 성주간(聖週間)이 시작되는 제 6 주일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주간은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성주간의 목요일 아침에는 주교가 사제단과 미사를 공동집전 하면서 성유(聖油)를 축성합니다. 사순절기간 동안의 전례는 우선 사제의 제의(祭衣)의 빛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노래부르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엄격히 단식하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40 일 동안 단식과 금육(禁肉)을 통해 절약한 것을 모아 두었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의 단식은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금요일에, 금육은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기간의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하고, 단식은 만 21 세부터 60 세 되는 날까지(환갑전), 금육은 만 14 세부터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규정된 단식이나 금육 이외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 미사참여, 사랑의 나눔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재의 수요일 -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 사순 제 1 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날 교회가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엷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재의 수요일이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즉 이날에는 그 전해의 예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종려나무나 다른 나뭇가지를 한곳에 모아 불에 태워 만든 재를 사제가 축성하여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모양으로 바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19), 혹은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원한 삶을 구하라는 장엄한 외침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교황 성 그레고리오(St. Gregorius) 1 세(재위 : 590~604)에 의해 사순절의 첫날로 성립되었고, 바오로(Paulus) 6 세(재위 : 1963~1978)는 이날 전 세계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